

통신4사-고용노동부,

대국민 안전의식 향상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 통신 4사 업무용 차량 3,500대에 안전의식 향상 슬로건 부착 운행**

|  |
| --- |
| **※ 고용노동부와 통신4사가 공동 배포하는 보도자료입니다.**  **※ 발대식 사진은 행사 종료 이후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2022. 12. 5]**

통신 4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2월 5일 「통신4사-고용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을 대표하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 Broadband),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가 공동으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 (핵심 슬로건) 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②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 4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동향, 신기술, 사고사례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로드맵의 목표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며,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안전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 종사자의 산재 예방은 물론,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통신업을 대표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통신4사의 차량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안전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업들의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활동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신 4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스마트 안전 솔루션 등 산업재해 예방책을 함께 고도화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SK텔레콤 PR담당 전략PR팀 우현섭 매니저 (02-6100-385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금정수 과장(044-202-8920), 원치욱 사무관(044-202-8930)**

